

『傷寒論』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하여 桂枝人參湯을 투여한 아토피 피부염 치험 1례

김남곤*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16-40 성제병원*

A Case Report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by Kyejiinsam-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Nam-Gon Kim*

Sungjea Hospital, 916-40, Yonggi-ri, Angye-myeon, Uiseong-gun, Gyeongbuk, Korea*

Objective : This study reports the effect of Kyejiinsam-tang on Atopic Dermatitis.

Methods : This is a case report on a patient who has been suffering from Atopic Dermatitis. According to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Kyejiinsam-tang was provided for 250 days. The severity of Atopic Dermatitis was evaluated by SCORAD index and pictures.

Results : When analyzing the patient's history and symptoms, it can be found in article No. 163 in *Shanghanlun*. The area and intensity of Atopic Dermatitis were reduced when viewed photos findings, and SCORAD index decreased 58.1 to 7.1. So diagnosis and therapies showed valid results in Atopic Dermatitis.

Conclusions : Kyejiinsam-tang is efficient to patient of this case report as a treatment.

Key words : Kyejiinsam-tang, Atopic Dermatitis, *Shanghanlun*,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 Corresponding author : Nam-Gon Kim. Sungjea Hospital, 916-40, Yonggi-ri, Angye-myeon, Uiseong-gun, Gyeongbuk, Korea. E-mail : kngsy2@naver.com

· Received : 2017/12/05 · Revised · 2017/12/20 · Accepted : 2017/12/20

서 론

주로 영유아기에 발생하여 지속적인 경과를 보이는 아토피피부염은 소양증, 피부건조증,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하는 만성 재발성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으로서 유전적, 환경적, 심리적, 면역학적 요인, 피부장벽의 문제 등 여러 기전에 의해 발생한다^{1,2)}.

1980년 Hanifin과 Rajka이 4가지 주증상과 23가지 부증상으로 진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아토피는 개인, 연령, 인종에 따라 임상 양상이 다양하므로 각국의 실정에 맞춰 변화하였으며 한국에서도 2005년 ‘한국인 아토피피부염 진단기준’을 제정하였다³⁾.

아토피피부염의 치료목표는 크게 악화요인의 제거, 피부장벽기능의 호전, 염증의 완화, 그리고 이차감염의 예방이다²⁾. 일반적으로 국소 또는 전신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보습제 등을 사용하며, 이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전신 면역억제제, 광선요법 등이 권장되나 실제 임상에서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⁴⁾.

한의학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을 胎斂瘡, 胎熱, 胎癩, 奶癩, 乳癩 등의 범주로 규정하였고 원인을 燥, 濕, 熱, 虛 등으로 분류하여 祛風, 清熱, 利濕, 益氣, 滋陰養血 등의 치법을 활용한다⁵⁾.

處方을 활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험례로는 구 등⁶⁾의 淸肌散 變方을 이용한 치험 1례, 조 등⁷⁾의 回逆散을 처방한 치험 2례, 손 등⁸⁾의 사상의학으로 치료한 치험 1례, 손 등⁹⁾의 濕熱로 변증한 환자 치험 6례 등이 보고되었다.

본 환자에게 처방된 桂枝人參湯에 대해서 안 등¹⁰⁾의 연구가 있으나 아직 피부질환에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증례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傷寒論』條文에 근거한 辨病診斷體系^{11,12)}를 활용하여 상한론 163번 조문으로 진단하고 桂枝人參湯을 투여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 환자명 : ○ ○ ○

2. 환자 기본정보

남성 / 29세 / 184cm / 65kg / 한의사

3. 주소증(C/C) : 아토피 피부염

옆구리 부위의 구진(丘疹), 인설(鱗屑), 태선화(苔癬化), 소양감(瘙癢感)

한국인 아토피 피부염 진단기준(2005)

1) 주 진단 기준 - 소양감, 특징적 피부염의 모양 및 부위

2) 보조 진단 기준 - 피부 건조증, 피부감염의 증가, 백색 비강진, 혈청 면역글로블린 E(IgE)의 증가(의료원 검사)를 근거로 아토피 피부염 진단.

4. 발병일(O/S) : 2011년

5. 현병력(P/I)

1) 정확한 시점은 기억하지 못하나 대학 입학 후 몸이 피로해지면 옆구리 부위에 소양감과 맑은 진물이 나고 씻어내면 사라지

는 현상이 존재함.

2) 2011년 경 잦은 자위로 몸이 안 좋아지면서 옆구리의 소양감, 통증, 진물, 딱지가 생겨 한약을 복용했으나 이후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매우 악화.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사용했으나 증상완화에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음.

3) 술, 가공식품, 후추와 같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쓰림, 설사와 함께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됨.

6. 가족력 : 없음

7. 과거력 : 없음

8.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없음

9. 주요 임상증상

1) 食慾 : 대체로 입맛이 없음.

2) 消化 :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트림과 구역질이 자주 발생함.

3) 口部 : 입이 마르거나 갈증을 느끼지 않음. 음수량은 적은 편.

4) 汗出 : 땀이 잘 나지 않는 편인데 운동으로 땀을 내면 개운하고 증상도 완화됨.

5) 大便 : 1일 1~2회, 묽고 끈적한 변. 차고 맵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설사가 극심함.

6) 小便 : 1일 5-6회.

7) 寒熱 : 추위를 많이 탐. 환부는 열이 나고 타는 듯한 느낌이 있음.

8) 頭面 : 별무

9) 呼吸 : 별무

10) 胸部 : 짜증이 쉽게 나는 편.

11) 腹部 : 속이 타는 듯하고 칼로 긁어내

는 느낌,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도 있음.

12) 睡眠 : 잠이 잘 들지 않는 편이며 환부 통증과 속쓰림으로 숙면에 지장을 받음.

13) 身體 : 뒷목 어깨가 무거움, 허리통증이 있으며 운동을 통해 관리

14) 性慾 : 왕성

15) 婦人 : 해당사항 없음

10.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Table 1참고)

(1) 臨床所見

① 옆구리 병변의 태선화가 진행되었고 인설이 존재하며 증상이 심할 때는 진물, 소양감,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음.

② 대학 입학 후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옆구리 부위의 피부병변이 나타남을 확인.

③ 2011년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시기에 잦은 자위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불량한 식습관으로 유발된 극심한 소화기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

(2) 辨病診斷 : 辨大陽病 結胸

① 脉浮, 頭項強痛 : 평소 움직임이 크고 활동량이 많다. 한 가지 일을 할 때 본인의 체력 이상으로 무리를 하게 되고 이에 뒷목이 굳고 주소증이 악화된다. 즉 몸의 활동도에 따라 병의 호악(好惡)이 결정.

② 惡寒 : 추위를 많이 타고 환절기 감기, 비염에 민감하다.

③ 結胸 : 분노, 걱정을 가슴 속으로 삭히고 담아두고 있는 모습을 보임.

(3) 條文診斷 : ㉔163. 大陽病, 外證未除, 而數下之, 遂協熱而利, 下不止, 心下痞鞭,

表裏不解者, 桂枝人參湯主之¹³⁾.

① 遂協熱而利 : 환부에 열감이 발생하고 설사와 잦은 사정행위가 존재함.

② 下不止, 心下痞鞭 : 자극적인 음식에 수차례 설사를 하고 소화가 안 되며 딱 막혀 있는 느낌이 듦.

③ 表裏不解 : 表는 피부질환과 연관된 피

부의 이상상태를 표현한 병리적 용어로서 열구리의 구진, 태선화, 인설 등을 나타냄. 과거 外用제를 통한 관리에도 특별한 호전이 없었음. (不解)

이에 근거하여 傷寒論 163번 大陽病 結胸 桂枝人參湯 조문으로 진단하였다. (Table 1 참고)

Table 1. The main diagnostic points of this case

category	Expression in the provision of <i>Shanghanlun</i>	Related Patient Information
Greater yang disease	大陽病	Excessive activity, Symptoms worsen with cold stimulation
Skin problem	表	Atopic dermatitis

* Terminology using in this category was consulted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2) 치료 평가 도구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증상은 SCORAD index¹⁴⁾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환자의 피부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문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SCORAD index는 아래 3가지 항목의 평가를 통해 계산하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SCORAD index} = A/5 + 7B/2 + C$$

A. 병변의 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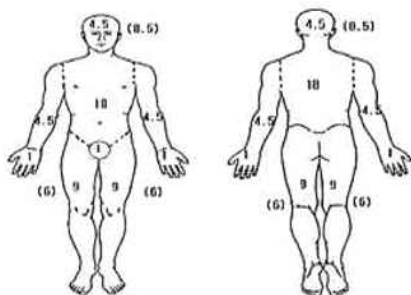


Fig. 1. Area of atopy dermatitis in SCORAD

B. 병변의 정도(각 0-3점)

홍반/변색, 부종/구진, 삼출/가피, 찰상, 건조감, 태선화

C. 소양감, 수면장애의 정도(각 0-10점)

11. 치료적 중재

1) 한약 투여 (Table 2. 참고)

桂枝人參湯을 250일간 투약하였으며, 1일 3회, 1회 120cc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2) 생활지도

①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고 활동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할 것을 당부함.

②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 가공 식품 섭취 등 소화기에 부담을 주는 식습관을 교정할 것을 당부함.

Table 2.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Kyejiinsam-tang¹⁵⁾

Herbal name	Daily dose(g)
桂枝 Cinnamomi Ramulus	12
甘草 Glycyrrhizae Radix	12
人參 Ginseng Radix	9
白朮 Atractylodes japonica	9
乾姜 Zingiberis Rhizoma Siccus	9

Dried herbs above were decocted in boiled water.
120cc tid, 250days.

12. 치료기간 및 경과

1) 기간 : 2016년 3월 - 11월

2) 경과 (Table 3,4 Fig. 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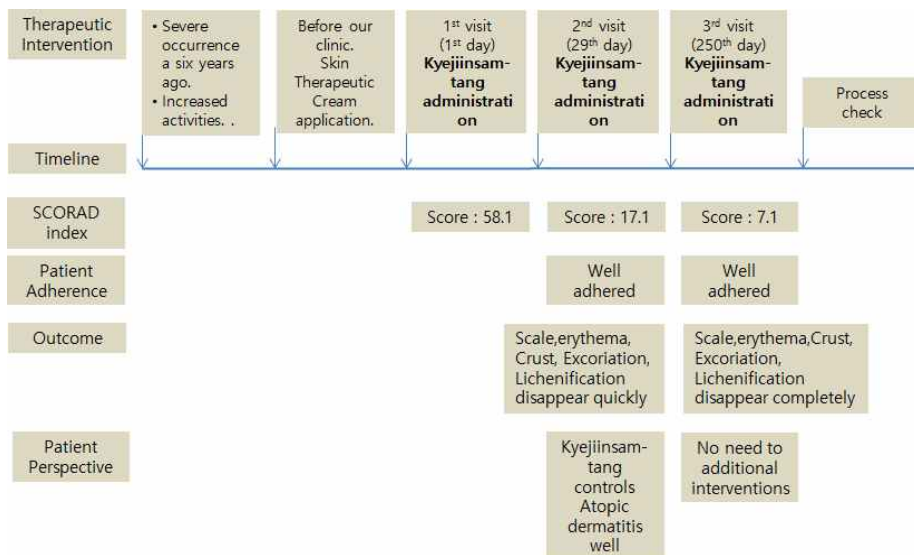
Table 3. Clinical Symptom Progress

Date	Herbal medicine	Clinical Progress
2017.03.01	桂枝人參湯	옆구리의 광범위한 부위에 걸쳐 구진, 인설이 존재함. 소양감이 심하고 따끔따끔한 통증이 있음. 만성화된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 태선화가 진행된 상태. 후추, 고춧가루 등의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설사를 하며 피부염 증상이 극심해진다.
2017.03.01.~2017.03.29	桂枝人參湯	옆구리 부위 구진의 붉은색이 얼어지고 인설이 대부분 소실됨. 소양감 및 병변의 따끔거리는 느낌 소실. '桂枝人參湯 첫 복용 후 트림이 많이 나오고 피부에 소름이 돋으면서 시원하게 열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 속 쓰림, 설사의 빈도가 줄고 식욕이 돌아옴. 매운 음식을 먹어도 전과 같이 피부염 증상이 극심하게 악화되지 않음.
2017.03.29.~2017.11.06	桂枝人參湯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모두 소실됨. 피로한 상태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가끔 소양감이 발생하나 금세 진정이 됨. 태선화, 색소침착 등의 만성 피부염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짐.

Table 4. Changes of the scale

Date	2017. 03. 01.	2017. 03. 29.	2017. 11. 06.
Extent criteria	3.6	3.6	3.6
Intensity criteria	38.5	10.5	3.5
Subjective criteria	Pruritus	8	2
	Sleep loss	8	1
SCORAD index	58.1	17.1	7.1

Fig. 1. Timeline analysis of this case



* This figure’s category that Therapeutic intervention, Timeline, Disease status(SCORAD index), Patient adherence, Outcome, Patient perspective follow the CARE guideline.

Fig. 2. Pictures of Atopic dermatitis



2017. 03. 01

2017. 03. 29

2017. 11. 06

고 찰

아토피피부염은 주로 유아, 소아에 발생하는 만성재발성 피부염으로 이의 치료는 피부염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과 유발인자의 규명과 제거와 같은 방법들로 이루어진다^{16,17)}.

아토피피부염 학회에서는 한국 아토피피부염의 치료지침으로 보습, 국소 스테로이드제, 국소 calcineurin 억제제를 기본치료로 삼고 항히스타민제, 광선치료, 면역반응 조절제, 면역 억제제, 류코트리엔 길항제 등을 보조 및 선택 치료 수단으로 보고한 바 있다¹⁸⁾.

아토피피부염의 기본 치료로 사용되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는 다기관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324명의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265명(81.8%)이 국소 스테로이드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국소 면역조절제를 사용한 응답자는 111명(34.3%)이고 사용 후 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사용자 중 36명(32.7%)이라고 보고하였다¹⁹⁾. 또 국소 스테로이드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피부 얇아짐 81명(33.2%), 혈관 확장 40명(16.4%)의 답변이 있었으며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한 예는 181명(55.9%)으로 韓方이 그 중 131명(72.4%)으로 가장 많았다¹⁹⁾.

處方을 활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험례로는 구 등⁶⁾의 淸肌散 變方을 이용한 치험 1례, 조 등⁷⁾의 回逆散을 처방한 치험 2례, 손 등⁸⁾의 사상의학으로 치료한 치험 1례, 손 등⁹⁾의 濕熱로 변증한 환자 치험 6례 등이 보고되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傷寒論』 辨病診斷體系^{11,12)}를 활용한 윤²⁰⁾ 등의 吳茱萸湯, 조⁷⁾ 등의 回逆散, 이²¹⁾ 등의 甘草瀉心

湯, 민²²⁾ 등의 小柴胡湯 치험이 각 1례씩 보고되었다.

한편 桂枝人參湯에 대해서는 안 등¹⁰⁾의 연구가 있으나 아직 피부질환에 보고된 바가 없는데 桂枝人參湯이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피부질환에 어떻게 응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마리는 桂枝人參湯 조문의 表라는 字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表의 사전적 의미는 겉, 바깥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감기 초기의 일차적인 신체 반응을 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등²³⁾의 가설 및 연구에 따르면 表는 皮라는 字素(동물의 몸통과 손으로 구성되어 가죽을 손으로 벗기는 모습)와 刀의 字素로 구성되어 사람의 상처나 피부의 이상부위를 칼로 도려내야 하는 정황을 담은 字로서 피부질환(여드름, 아토피피부염, 한포진, 건선 등)을 의미한다.

裏는 상한론 조문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表裏로 기록되므로 表와 마찬가지로 피부의 특정 이상상태를 나타낼 가능성을 가설로서 염두 해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본 환자는 약 6년간 악화, 지속된 옆구리 부위의 아토피피부염을 주소증으로 내원하였다. 大陽病으로 진단하는 기준은 提綱을 따른다. 즉 ①. 大陽之爲病, 脉浮, 頭項強痛, 而惡寒¹³⁾이 병의 형성에 핵심이 되고 이 부분이 조절되지 않아 병의 원인이 되면 진단할 수 있다. 환자의 History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병이 악화된 시점에 활동량이 확연히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몸의 컨디션 및 아토피피부염의 악화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한 구진, 홍반, 태선화, 인설 등의 피부이상을 주소로 내원하였기에 피부의 이상상태를 표현한 表로 진단하였으며 환부의 열감, 자극적인 음식에 소화가 안 되고 수차례 설사를 하는 등의 문제와 아토피피부염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163번 조문으로 최종 진단하였다.

桂枝人參湯을 250日 간 투약한 결과 SCORAD index는 58.1에서 7.1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傷寒論 辨病診斷體系^{11,12)}를 활용하여 조문의 表를 피부의 이상상태로 규정하고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진단, 투약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며 향후 조문의 고문자적, 어원학적 고찰 및 桂枝人參湯과 피부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사 사료된다.

결 론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하여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傷寒論 163번 條文으로 진단하였고 桂枝人參湯을 사용한 결과 유의미한 치료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Reference

1. KDA textbook editing board. Dermatology 6th edition. Seoul: Publication Ryo Moon Gak. 2014:202-213.
2. Kim MB, Kim BJ, Seo YJ, Lee YW, Lee AY, Kim KH, Kim MN, Kim JW, Ro YS, Park

- YM, Park CW, Seo SJ, Lee KH, Cho SH, Choi JH. Skin Care for Atopic Dermatitis. Korean J Dermatol. 2009;47(5):531-538.
3. Kim JY, Lim HJ, Kim HY, Lee WK, Kim BS, Lee WJ, Lee SJ, Kim DW.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Rate according to Diagnostic Criteria in Atopic Dermatitis: Prevalence Rate of Atopic Dermatitis according to Hanifin-Rajka, Japanese, Korean Diagnostic Criteria and Characteristics of Three Different Diagnostic Criteria . Korean J Dermatol. 2010;48(8):649-56.
4. Yang Park . Status of clinical practice on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topic dermatitis in Korea: a questionnaire survey of physicians. Allergy Asthma Respir Dis. 2013;1(3):257-66.
5. Son KH, Lee JG, Jee SY. A philological study on demonstration of Atopic dematitis Th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 2009;34(4):15-24
6. Koo JS, Soe BI. A clinical study on a patient with atopic dermatitis. Kor. J. Herbology. 2014;29(4):9-12.
7. Jo SH, Jo EH, Kim SJ, Park IH, Park MC. Two cases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with Huini-san.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14;27(3):180-190.
8. Son DC, Yun YK, Chou LS, Jung DY. A Case report on Sasang constitutional Therapies for Atopic Dermatitis of Teumin Patient . Journal of korean oriental internal medicine. 2003;24(4):987-994.
9. Son BK, Choi IH. 6 Cases of Acute Lesion of Atopic Dermatitis Diagnosed as damp-heat type.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07;20(2):213-229.
10. Soon-sun An, Dong-seok Heo. Effects of Kyejiinsam-tang i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J Korean Med. 2013;34(3):69-85.
 11. Lee SJ, Lim JE. A Diagnostic System and Clinical Application Based on Shanghanlun six Meridian Patterns and Provisions. Seoul: KMediACS publishing house. 2013.
 12. Kim DD. A study on the naming of 'A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six meridian patterns and provision' and suggestion. Seoul:KMediACS publishing house. 2013;5(1):19-29.
 13. ChangJK. Gangpyeong Shanhanlun. Seoul: KMediACS publishing house. 2013.
 14. Kunz B1, Oranje AP, Labrèze L, Stalder JF, Ring J, Taïeb A. Clinical validation and guidelines for the SCORAD index: consensus report of the European Task Force on Atopic Dermatitis. Dermatology. 1997;195(1):10-9.
 15. Lee SI, Cho HR. The comparison of the Shanghanlun. Seoul:KMediACS publishing house. 2015;25,198.
 16. Ring J, Brockow K, Abeck D. The therapeutic concept of 'patient management' in atopic eczema. Allergy 1995;51:206-215.
 17. Abeck D, Strom K, Optimal management of atopic dermatitis. Am Clin Dermatol 2000;1:41-46.
 18. JiHyunLee, KyuHanKim. MyeongNamKim, JinWooKim,, YoungSuckRo, Young Lip Park, Chun Wook Park, Kwang Hoon Lee, Ai Young Lee, Sang Hyun Cho, Jee Ho Choi. Report from ADRG: The Treatment Guideline of Korean Atopic Dermatitis. Korean J Dermatol. 2006;44(8):907-913.
 19. Dong Hun Lee, Eun Jin Doh, Jin Young Lee, Yang Park, Jae Won Oh, Mi Hee Lee, Soo Jong Hong, So-Yeon Lee, Joon Soo Park, Dong-Ho Nahm, Hye Yung Yum. Multicenter questionnaires on the current management of atopic dermatitis in Korea. Allergy Asthma Respir Dis 2016;4(4):271-275.
 20. Yun SM, Im EK. A Case Report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by Osuyu-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Seoul:KMediACS publishing house. 2013;5(1):85-92.
 21. Lee SJ, Ryu HC. A Case Report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by Gamchosasim-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Seoul:KMediACS publishing house. 2014;6(1):71-78.
 22. Min JH, Jo SH. A Case Report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by Soshiho-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Seoul:KMediACS publishing house. 2015;7(1):75-85.
 23. Lee SJ, Kim NG. A Case Report of Dyshidrotic Eczema treated by Socheong-ryoung-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Seoul:KMediACS publishing house. 2016;8(1):41-51.